

49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느헤미야

Chapter

느 1~6장

찬송가 37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찬양 74장 (작은 촛불이 되리라)

오늘 배울



말씀

1. 느헤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압니다.
2.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일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주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느헤미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좋아하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바사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조상들의 땅인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한 성 시온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다에서 돌아온 그의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성벽은 파괴되고 성문들은 불타 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그는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느헤미야는 왕을 대면한 자리에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을 중건하게 해 주실 것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된 그는 철저한 준비와 기도 가운데 백성의 마음을 일깨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일심으로 일어나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했지만 곧 이를 들은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 계셈의 비웃음과 방해, 모략 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철저한 헌신과 탁월한 행정력 및 강력한 리더십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불과 52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마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백성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밖에도 십일조와 이방인 잡혼 문제를 개혁하고 안식일을 엄수토록 하는 등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되는 성경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느 2:17)

Then I said to them, "You see the distress that we are in, how Jerusalem lies waste, and its gates are burned with fire. Come and let us build the wall of Jerusalem, that we may no longer be a reproach." (Ne 2:17)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느 1:3~4)

(느 2:4~5)

(느 4:3~5)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이 맡은 구역들이 나옵니다.
 3장을 읽고 다음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 빈 칸을 완성해 보세요.

1. 예루살렘 성벽 중수는 ()에서 시작하였으며 이 문은 대제사장 ()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일어나 건축했습니다(1절). 이 문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통과하는 문이며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2. 그 다음을 건축한 사람은 () 사람들입니다(2절).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30km 이상이며 고도 차이는 1,000m 이상으로 계속적인 오르막길입니다. 그런 지리적 문제 그리고 역사적 갈등을 핑계치 않고 그들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3. 4절에 나오는 학교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중수를 끝내고 난 후에 또 다른 지역을 맡아 중수함으로써(21절) 다른 이들보다 배나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4. 5절의 () 사람들은 자기 귀족들이 성벽 중수에 불참하는 가운데서도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이 맡은 일을 부지런히 끝낸 후 또 다른 지역을 맡아 중수함으로써(27절) 귀족들이 불참한 몫까지 담당했습니다.
5. 8절의 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과 향품 장사 () 등은 직업의 특성상 섬세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사리지 않고 이 거친 일에 참여했습니다.
6.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의 아들 ()은 (9절)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벽 중수에 빠지지 않고 동참했습니다.
7. 하루밤의 아들 ()는 자기 ()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했습니다(10절). 그는 아마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성벽을 중수했을 것입니다.
8.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까지도 성벽을 쌓는 험한 일에 동참시켰습니다(12절).
9.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자신들의 힘을 보탤었습니다. 나는 평소 교회당 청소나 기타 봉사가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교회에 일이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함께 참여하여 힘을 보탬 것을 각오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어느 청년의 절망



작은 착각이 청년을 절망으로 몰아간 것처럼 말씀과 교제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영적으로 잠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9)

지미 듀란테의 잊을 수 없는 공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의 하나였던 지미 듀란테는 어느 날 제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을 위한 쇼에 출연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미 듀란테는 쇼 기획자에게 자신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단 몇 분밖에 출연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한 원맨 쇼 하나를 한 뒤에 곧바로 내려오는 조건으로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어 지미 듀란테가 무대 위에 올라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속한 원맨 쇼를 끝내고도 무대에서 내려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지미 듀란테는 계속해서 쇼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무대 뒤에서 바라보던 쇼 기획자는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 지미 듀란테의 마음이 변한 이유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15분, 20분, 30분이 흘러갔고 마침내 지미 듀란테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쇼 기획자가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난 당신이 몇 분간만 무대에 설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지미 듀란테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럴 계획이었지만, 내가 계속 쇼를 진행한 데는 이유가 있소. 저기 무대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을 보시오." 쇼 기획자는 무대 틈새로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맨 앞에 두 명의 참전 용사가 앉아 있었는데, 둘다 전쟁에서 팔 한 쪽씩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왼쪽 팔을 잃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남은 한쪽 팔을 서로 부딪쳐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는 모자란 점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부족한 힘을 모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해 주십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